MIRZINE

2016 **Vol. 40** _봄호

old & new

THE GLOBAL STANDARD
MIR DENTAL NETWORK

제 계절이 돌아오면 성실히 피어난다.
꽃이 피고, 지는 시간
그 풍경에는 어제와 오늘,
내일이 모두 담겨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
어김없이 피어나는,

오늘도 내일도 너는 꽃

MIRZINE

2016 SPRING / **VOLUME. 40**

Part **01**

미르 in

04
Intro
좋았던 시절, 새롭게 태어나다

06
Theme Column
과거가 아름다운 현재

08
미르 + α
숫자로 알아보는
미르의 어제와 오늘
•
미르의 2016년
•
우리 문화재 보존·복원 캠페인

14
Interview
창원미르치과 박욱 대표원장

Part **02**

테마스토리

19
테마가 흐르는 페이지
올드 & 뉴

20
VS
아날로그 vs 디지털

24
스페이스
공간을 만나다

30
시선
사물의 역사

32
이슈 & 트렌드
복고 콘셉트의 신상품 아이템

Part **03**

미르 NEWS

34
NEWS
미르의 새로운 소식

39
미르의 봄
봄을 그대에게

통권 제40호 **발행인** 류경호 **발행일** 2016년 3월 **발행처** (주)미르네트워크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2 (삼덕동 2가)
〈미르진〉은 미르를 찾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6

좋았던 시절,
새롭게 태어나다

"누가 이런 옷을 사겠어?"
1946년, 프랑스 패션계에 등장한 '뉴 룩'을 보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전쟁의 영향으로, 각진 셔츠와 폭이 좁은 치마를
주로 입었던 프랑스 여성들.
이러한 상황에서
경사진 어깨 라인, 잘록한 허리 라인,
길고 풍성한 스커트의 실루엣이 돋보이는 '뉴 룩'은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모두 다 틀렸다고 했지만
'뉴 룩'의 성공을 장담했던 단 한 사람.
'뉴 룩'을 패션시장에 내놓은 신인 디자이너, 자신.
그는 조바심 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뉴 룩'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기다릴 뿐.

시간이 지날수록, 프랑스 여성들은
'뉴 룩'이 보여준 복고적인 여성스러움에 매료되었고,
인기는 전 유럽과 미국에까지 퍼져나갔다.

옛 시절을 향수하며,
좋았던 시절을 패션으로 부활시킨 디자이너, 크리스챤 디올.
'뉴 룩'의 성공 후에도
여성스러움과 모던함의 조화를 시도하며
어제와 오늘, 내일의 패션을 그려나간 그는
지금도 패션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로 불리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당시의 패션을재해석한 스타일이
바로 '뉴 룩'입니다.

과거가 아름다운 현재

글_ 신상조(문학평론가, 계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고전 응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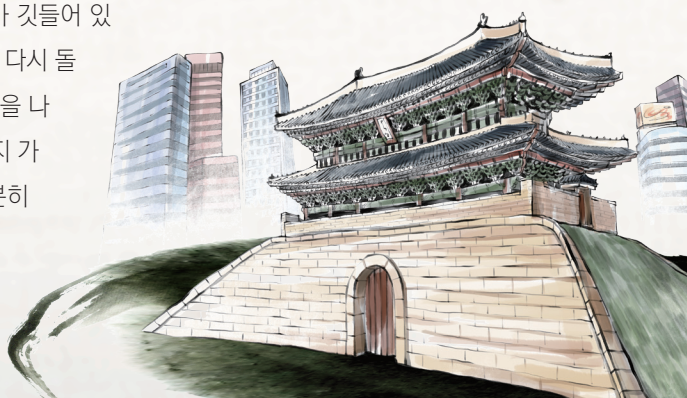
소년 엘리엇과 외계인 E. T.(Extra-Terrestrial)가 검지 끝을 맞대는 장면. 이것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 T.〉(1982)의 포스터다. 인간과 외계인 사이에 오간 소통과 교감을 서로의 검지를 맞대는 모습으로 표현한 포스터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이 포스터가 천지를 창조한 신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검지, 즉 이탈리아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저 〈천지 창조〉를 그대로 모방했음을 눈치챈 사람은 흔치 않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예술에서 모방은 창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물론 〈E. T.〉의 포스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한 바 있는 그 '인간 본성에 내재한' 모방 욕구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베끼기에 가까운 작업이다. 그렇더라도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논리를 예술로 끌어와서 이토록 유쾌하게 써먹을 수 있다니. 베끼기도 잘만하면 표절이 아니라 좋은 창작 방식이 되겠다. 더군다나 예술사에는 반드시 고전에서 작품의 소재나 주제를 취해야만 했던 시절도 엄연히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연극이 그러하고, 고전 회화에서 그리스신화나 성서의 이야기가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새로운 게 좋아요

한편으로 고전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전통의 보존이냐 전통의 단절이냐를 놓고 따지는 문제가 예술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필자가 문학에 막 입문하고서 처음으로 배운 게 '스승의 등에 칼을 꽂는' 부정의 정신이었다. 이때 '스승'이란, 자신이 영향을 받은 모든 예술을 상징한다. 앞선 시대의 예술을, 거기에 더해 자신의 예술 세계조차 멋지게 한판 뒤집기하지 않는 예술은 진정 예술도 뭣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대의 '영향'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예술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순수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끝없이 새롭기'만'을 요구하는 태도는 실상 고도자본주의의 속성을 그대로 빼닮은 것이기도 하다. 가령 〈슈퍼스타K〉 등의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를 향해 심사위원들은 흔히 이런 멘트를 던지곤 한다. "다음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합니다." 이 말을 놓고, 그저 자신의 결점을 보완해서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출연자가 있다면 그는 지나치게 단순한 사람이 아닐까.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이내 뒤처지고 마는 대중예술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답게, 심사위원들은 출연자에게서 새로운 트렌드가 될 만한 뭔가를 요구한다.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의 애플리케이션처럼, 출연자들이 매순간 요구받는 것은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마는 '무한 경쟁'의 세계를 닮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단한 변신' 혹은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다그치는 이 고도자본주의의 경쟁 논리와 고스란히 겹친다. 그러한 논리에 의하면, 사회적 부적응자는 게으르거나 둔감한 사람에 다름 아니다.

되새겨서 이어가기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태도,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인한 새로움의 추구가 때로 이 세계의 좋지 못한 점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렇듯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오늘날, 옛것을 익힘으로써 미루어 새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정신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것은 옛것과 새것의 단순한 구분을 넘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여전히 감싸 안아 지키고 보듬을 것인가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맥이 닿는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응답하라 1988〉이란 드라마가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이 이를 증명한다. 쌍팔년도, 쌍문동의 한 골목에 모여 살던 다섯 가족의 왁자지껄한 삶에는 분명 오늘날에도 아끼고 보존해 마땅한 과거의 모습, 고리타분하다고 치부했으나 다시 되새김으로써 겸허하게 이어갈 그 무언가가 깃들어 있을 터이다.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다. 아무리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해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더라도 1980년대의 아름다운 삶, 이웃끼리 정을 나누며 살던 순수하고 따스한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되살리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키고 보듬어야 할 과거가 있는 현재란,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숫자로
알아보는

미르의 어제와 오늘

진료를 잘하는 치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나은 진료환경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끊임없는 임상연구를 통해 진료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은?

환자와 의사, 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2002년, 미르치과네트워크는 이러한 고민과 다짐에서 시작했다.
'진료를 잘하는 치과', 기본에 충실한 치과로서의 발전을 추구한 치과 원장 및 스태프들이 같은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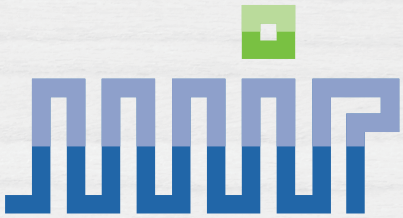
10여 년이 흐른 지금, 미르치과네트워크는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대구미르, 상무미르, 순천미르, 창원미르 4개 치과병원으로 시작된 미르치과네트워크에는 2016년 현재 전국의 21개 치과병원이 함께하고 있다. 그간 미르치과네트워크는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공유했고, 특히 2003년부터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학술적인 교류를 지속했다.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지원하고자 여자검도실업팀을 창단하여 검도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국외 소재문화재 캠페인을 펼쳐 우리 문화재 지킴이로 활약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해외의료봉사도 10년째 이어갔다.

'진료를 잘하는 치과'로서 모두의 행복을 그려가는 처음의 마음.
이것이 미르의 어제이자 오늘이고 곧 미래다.
승천하는 용, 미르가 품은 여의주가 점점 더 밝게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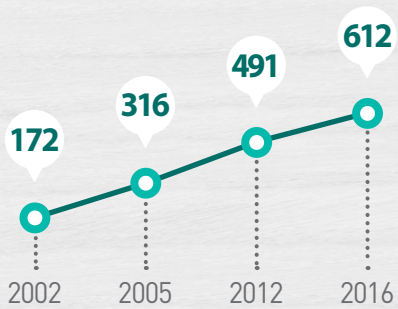
회원병원 수

전국 각지에서 빛나는 미르치과병원들!
미르 경영철학과 뜻을 같이하는
치과병원은 2016년 현재, 21개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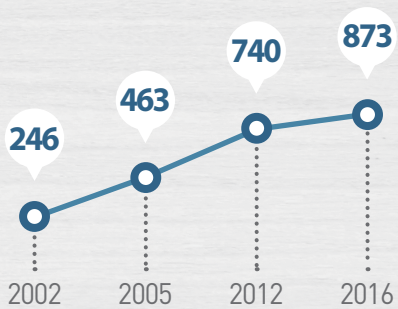
체어 수

미르를 찾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르, 의료환경도
나날이 업그레이드시켜 나간다.



인원 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는 미르 식구들!
규모는 물론 그 열정까지도
커져가고 있다.



심포지엄 개최 횟수

학술과 임상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르!
선진화된 치과병원으로서 롤 모델이 되다.

2002 ~ 2016 **14**

미르치과네트워크, 2016년 연간 스케줄

학술·사회공헌·문화 등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미르치과네트워크. 올해는 어떤 활동으로 미르의 1년을 채우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미르치과네트워크의 2016년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다.

3월 6일

'진료비 협상의 기술'과 '소비자의 행동패턴 분석을 통한 환자심리 상담' 교육이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홀에서 열렸다. 리얼비즈 이승희, 덴탈리더스아카데미 박지연 대표가 연자로 나선 교육에는 182명의 스태프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강의가 끝난 후에도 강의자료를 요청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3월 12일

'지르코니아 컬러링 테크닉'을 주제로 한 수복학분과의 세미나가 대전 메가젠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주 구치과의 고경훈 실장이 연자로 나섰고, 치과의사 1명, 스태프 17명 총 18명이 함께했다.

3월 13일

자연치분과 TMD세미나가 대전 메가젠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교육은 턱관절 장애의 전반적인 이해 및 분류, 측두하악장애 분석, 비치성 통증의 이해 등으로 이루어졌다. 부산특편한치과 허준영 원장이 연자로 나섰고, 다양한 연령과 경력의 원장들이 참여하여 TMD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1월

26일 (화)
정기이사회

3월

6일 (일) 팀장 교육
12일 (토) 수복학분과 세미나
13일 (일) 자연치분과 TMD세미나
22일 (화) 정기이사회

4월

23일 (토) ~ 24일 (일)
제11회 미르친선골프대회

5월

8일 (일) 교정 세미나
29일 (일)
'근관치료' 케이스 세미나

6월

11일 (토) ~ 12일 (일)
용오름 체육대회

7월

12일 (화) 정기이사회
17일 (일)
'보험저격의 기술' 세미나

9월

4일 (일) 제14회 미르심포지엄
4일 (일) ~ 5일 (월) 아카데미 워크숍
24 (토) 제9회 미르치과검도대회

10월

9일 (일) '팀장의 기술'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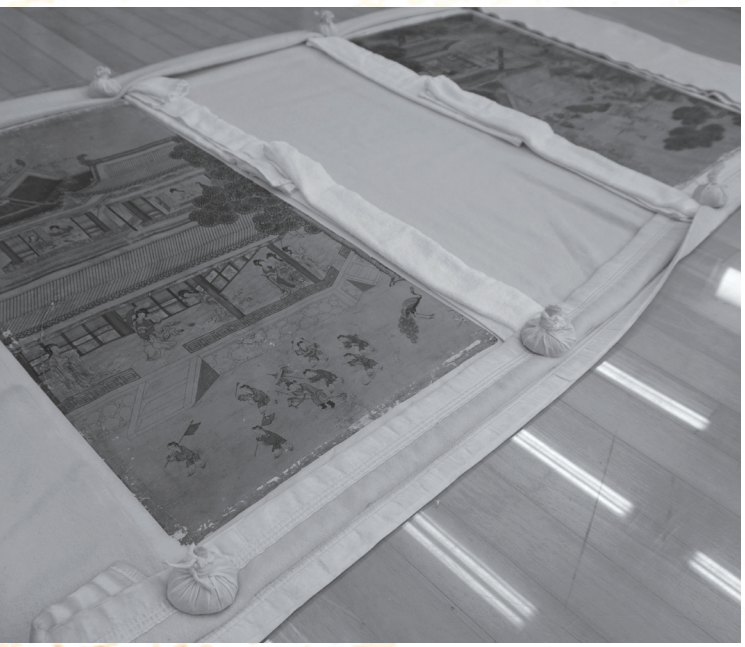
11월

6일 (일) '페이스리딩의 기술' 세미나
19일 (토) ~ 20일 (일) 통합이사회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문화재 보존·복원 캠페인

국외소재문화재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2015년 미르치과네트워크는 세계 속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보존·복원하기 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지원사업'**의 첫 걸음으로, 지난해 6월에는 해외기관에 소재한 한국문화재 실태를 파악하였고, 7월에는 해외기관에 소재한 한국문화재 중 복원이 시급한 문화재를 선정하였습니다. 8월에는 미국 필라델리아 미술관과 MOU 체결을, 9월에는 미국 플로리다대 사무엘 P. 한 미술관과 MOU 체결을, 10월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던 **'곽분양행락도'** 병풍을 국내기관으로 이관하여 복원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 고서(50권)의 손상과 부식을 막기 위해 보관함을 현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2016년도 4월에는 스펜서 미술관에 보관 중인 '곽분양행락도'를 복원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후원 사업 진행상황

2015년 ▶ 지원 완료

콜레주 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 소장 고서 및 고서류 보관함 제작

→ 보존관리함을 제작하여 해당 도서가 장기간 보존되도록 함

2015년 ▶ 지원 중

필라델피아 미술관 '곽분양행락도' 복원 작업

→ 상태조사를 위해 XRF 측정(금속 등 성분 분석), 현미경 촬영 등을 진행한 후 일본식 병풍으로 수리된 '곽분양행락도'를 그림만 뜯어내서 복원 작업을 진행

2016년 ▶ 지원 예정

스펜서 미술관 '곽분양행락도' 복원 작업

→ 스펜서 미술관에 보관 중인 곽분양행락도를 4월 중에 국내로 이관하여,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12월 중에 고궁박물관에서 전시

미르치과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가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66

벚꽃이 필 무렵, 창원시 상남동에 위치한 창원미르치과를 찾았다. 아늑하고 깨끗한 병원 안. 고객을 맞이하는 창원미르인들의 미소가 봄꽃 같다. 2002년 미르치과네트워크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미르의 역사를 함께 해온 창원미르치과. 그곳에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치과의학'에 빠져있는 박욱 대표원장을 만났다.

99

치아가 아니라 인체를 치료하는 것

창원미르치과 대표원장 박 욱

치과의학, 여전히 재밌어요

'상생, 진화, 혁신'이라는 모토 아래, 창원미르치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욱 대표원장. 그는 치료도 창의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늘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과는 재료에 따라서 기술이 달라집니다. 재료가 개발되면, 그 재료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지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재료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치아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아직까지 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치과의학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박욱 대표원장.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한 달에 한 번, 교정연구회 모임을 가지면서 연구 열정을 꽃피우고 있다.

"저는 환자의 치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보는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와 교정, 보철 및 악관절 질환을 함께 연구하고 있지요. 한 가지 치료만 필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인체는 모든 것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박욱 대표원장의 뚜렷한 가치관 덕분일까. 창원미르인들 역시 '공부'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화할 수 없고, 혁신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기술은 습득하고,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병원 식구들의 구호도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고. 박욱 대표원장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는 창원미르인들. 창원미르에서는 모두 프로가 될 수밖에 없다.

진심은 통한다는 마음으로

박욱 대표원장은 병원 광고나 홍보를 좋아하지 않는다. 광고보다는 진료의 질을 높이고, 치료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력을 바탕으로 한 그의 진심은 고객들이 먼저 알아봤다. 그게 바로 몇 십 년 동안 박욱 대표원장만을 고집하는 환자들이 많은 이유다.

"환자를 위해서, 또 환자의 형편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격식을 갖춰서 서비스하기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요. 사실, 치과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무서운 곳이잖아요. 진료 퀄리티 만큼,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욱 대표원장이 치료장비에 각별한 신경을 쏟는 것도 환자를 위한 마음에서다.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환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갖춰놓기 위해 노력한다고. 일반 의료용 CT에 비해 방사선 노출량을 최대 93.5%로 줄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Dental CT, 통증이 거의 없이 다양한 환부를 치료할 수 있는 물방울레이저, 안전한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식립 즉시 X-Ray 촬영을 할 수 있는 Potable X-Ray, 무통마취기, 구강카메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병원 내에 CAD-CAM 장비를 갖춘 기공실이 있어 진료시간은 줄이고, 향상된 진료 결과를 얻고 있다.

평소, 직원들에게 환자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박욱 대표원장은 환자들 역시 직원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환자 분들 만큼 직원들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간혹 '진료비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병원이 돈을 내고 치료만 받는, 단순한 구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직원, 환자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죠."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박욱 대표원장. 그의 이런 마음을 잘 알기에 창원미르인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창원미르와 함께하고 있다.

> 66
>
> 사실, 치과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무서운 곳이잖아요. 진료 퀄리티 만큼,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99

흔들림 없이, 소신대로

개원을 한 지도 어느덧 26년째에 접어든 박욱 대표원장. 그는 그동안 환자의 치아가 아니라 인체를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교합을 연구하는 데 힘써왔다.

“치과에서 제일 어려운 게 교합입니다. 교합은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합이 잘 되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쉽게 말해, 건축할 때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하부구조가 달라지고 모양이 틀어지죠. 모양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치과의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치아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치아 치료를 잘 해주면 이 사람의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하는 치과의, 박욱 대표원장. 그래서일까. 그에게는 유독 장기 고객이 많다. 그중 어떤 고객은 다른 치과는 믿을 수 없으니, 오랫동안 살아서 진료를 해달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고. 방문할 때마다 두 손 가득 간식거리를 가져오거나, 김장을 담가서 가져다주는 고객도 있다고 하니, 고객들이 창원미르에 얼마나 깊은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진다.

“한 번은 남극기지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있었어요. 메일로 예약해서 몇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치료를 받고 돌아갔죠. 또, 엄마 손을 잡고 따라 왔던 꼬마애가 자라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갔기에 박욱 대표원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환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책임을 다해야죠

현재 창원미르는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아동 치과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간단한 충치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비가 비싼 교정·임플란트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고.

“창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린이 재단에서 도움 요청이 와서 시작했는데, 그간 많은 청소년 환자들이 거쳐갔네요. 학부과정에서 ‘치의학은 예술이며 과학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쪽 업계에선 금과옥조이지요. 이후 수련과정을 마치고 치과의사가 되어 환자를 보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동시에 심미적인 부분도 회복시켜주는 책임과 임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재단을 통해 치료한 청소년 환자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거나,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 나타났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박욱 대표원장. 치과의로서 그의 모습이 더욱 빛나 보이는 순간이었다.

미르가족에게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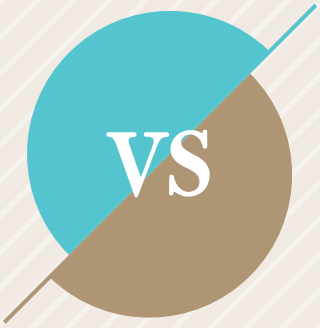
미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단체입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 만큼 각자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혹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미르만 바라보고, 치과의학을 재밌게 생각한다면 더 견고한 미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테마가 흐르는 페이지

- old & new -

아름다운 동행,
조화를 이루다

Analog



Digital

삶에 정답은 없다. 나에게 맞는 방식,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Reading

Analog

책은 종이 넘기는 그 느낌

2016년, 신년을 맞아 독서모임을 시작한 A양.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계발에도 좀더 신경을 써보자고 다짐했다. 그녀는 매달 함께 토론할 책이 선정되면 서점을 찾는다. A양은 서점 곳곳을 둘러보며 베스트셀러 코너를 살피고, 평소 관심을 두었던 고객 서비스 관련 책도 같이 구매한다. 출퇴근길이나 여가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책을 읽는 A양. 마음에 드는 구절에는 밑줄을 치고 여백에는 간단한 감상평도 남긴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독서노트에 줄거리와 인상 깊은 내용을 정리하며 다시금 책의 감동에 젖어든다. 독서노트를 채울 때마다, 책꽂이에 책이 쌓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는 A양. 다만, 책이 너무 두껍거나 무거울 때는 들고 다니기가 힘들 때도 있다고.

Digital

참 가볍고 편한 전자책

같은 독서 모임 D군은 선정 책이 발표되면 태블릿PC부터 켠다. 전자책 어플을 클릭해서 선정 책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다.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너무 편하다는 D군. 특히 잠자기 전에 전자책을 주로 읽는데, 스탠드 불빛도 필요 없고, 잠이 오면 태블릿PC 전원만 끄면 돼 편리하다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들은 그때그때 터치펜으로 태블릿PC에 메모하면 된다. 하지만 전자책은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혹, 시간이 있더라도 배터리가 다되면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Bank

Analog

금융 업무는 은행에서

60대 주부 A씨는 월말마다 은행을 찾는다.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를 내고, 기초노령연금도 수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장에 찍힌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며 가계의 지출과 수입을 꼼꼼히 따져보는 A씨. 통장 내역을 바탕으로 가계부를 정리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때론 이런 은행 업무에 지칠 때가 있다. 월말이면 주부 A씨처럼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시간에 맞추느라 다른 볼일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A씨는 최근 들어 자동이체, 폰뱅킹을 이용하기 시작해 시간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통장 정리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Digital

모바일뱅킹으로 24시간 OK

20대 직장인 D양은 인터넷으로 통장을 개설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다. 당연히 은행에 갈 일은 거의 없고,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금융 업무를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송금이나 이체 업무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완료,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모바일 뱅킹은 송금이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아 이점이 있다.

이런 D양에게도 스마트한 금융서비스가 마냥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입출금 내역을 바로바로 확인하지 않다가 갑작스런 지출에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는 경우가 그렇다. 평소,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 D양은 스마트 서비스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다짐하고, 통장 쪼개기에 도전했다. 투자 통장, 소비 통장, 비상금 통장을 나누어 월급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스마트폰으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자금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Travel

Analog

여정을 즐기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꺼내든 것은 작은 크로키 수첩이었다. A군은 애초부터 많은 곳을 둘러보겠다는 집착을 내려놓았다. 스케치를 마친 A군은 배낭에서 접어둔 지도를 꺼내 다음 행선지를 찾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가느라 시간은 걸렸지만, 아쉬울 것은 없었다. 행선지를 찾아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석양을 보았고, 친절한 마을사람들도 만났다. 저녁거리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뿌리가 붉은 시금치와 봄나물 몇 가지를 사서 숙소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 첫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여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여행이었다.

Digital

여행도 스마트하게

바쁜 일상 중에 주어진 시간은 1박2일. D양의 가족들은 이틀간의 여행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웠다. 그 중심에는 여행 어플이 있다. 어플로 숙소를 잡고, 교통편도 예약했다. 여행지 주변 볼거리와 맛집 정보까지 모두 마스터! 이밖에도 휴대용 접이식 베개, GPS 추적이 가능한 여행가방, 물과 세제를 넣고 손으로 비비면 세탁할 수 있는 휴대용 세탁기 '스크러바 워시백(Scrubba Wash Bag)'까지 필요한 여행 아이템들은 쇼핑몰에서 구매했다. D양 가족들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움직였다. 이동하는 틈틈이 여행 사진을 올린 D양과 가족들. 여행기록 어플에 사진을 올리면 저절로 여행노트가 완성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모두가 만족한 여행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빡빡한 일정에 녹초가 되긴 했다.

올드 & 뉴

공간을 만나다

공간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다른 시간이, 다른 감성이 흐르고 묻어나는
수많은 공간들…

마음에 드는 공간을 만났을 때
숨겨진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기분이 좋아지는 건
나와 맞는 공간을 찾는 게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연히 들른 곳에서 그런 공간을 만났다.
혼자이든, 함께이든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공간 자체에 빠져들 수 있는 곳.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카페,
그곳에서 공간이 건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첫 번째 **공간**

닿는 곳마다, 꽃자리

요란하지 않다. 화려하지도 않다. 한옥카페 '꽃자리'에서의 시간은 조금 더디게 흘러간다는 생각마저 든다. 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눈길을 끄는 나무와 꽃들. 그 사이에 자리 잡은 파라솔테이블이 꽤 인상적이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꽃자리'의 주변을 깨웠다.

풍경 소리를 들으며 '꽃자리'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바닥과 높은 천장, 그 아래로 은은하게 빛나는 한지조명…. 현대식 카페에 있을 만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선하다. 카운터 뒤로 보이는 전통적인 도자기잔과 모던한 분위기의 커피잔도 묘하게 어울린다.

주문을 하고, 진동벨을 받았다. 주문 방식이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직원이 계량한복을 입었다는 것. 계량한복과 진동벨, 생각지 못한 조화다.

작은 소반이 놓인 방. 방석마다 꽃이 피어있으니 그야말로 꽃자리다. 꽃자리에 앉아 동행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깥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차와 커피를 기다리는 것이 좋았다. 풀내음을 맡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아메리카노 두 잔과 대추차, 유자차가 나오고, '꽃자리'에서 직접 만든 단호박·대추 수제떡도 함께 맛보았다. 아메리카노에 검은콩이 따라 나오는 게 이색적이다.

카페를 나와 바로 옆에 자리한 야생화식물원으로 향했다. 초록빛을 보니, 걷기만 해도 위안이 되었다. 아직 틔우지 못한 봉오리들은 사월이 되면 꽃을 피울 것이었다. 이제 꽃향기로 가득 찰 꽃자리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머무는 동안 천천히 시간을 향유할 수 있었던 공간. 구석구석, 정성과 애정이 담겨져 있으니, 굳이 꽃 피지 않아도 닿는 곳마다 꽃자리다.

위치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77

清齋精舍

두 번째 **공간**

멈추어 서서, 덕영커피

카페는 골목이 시작되는 곳에 있다. 매일 지나가는 길에 있는데도, 처음엔 들어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통유리 안으로 보이는 작은 테이블들. 밖에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공간. 열 명 정도만 서 있어도 꽉 들어찰 것 같은 작은 카페인데도 어쩐지 용기가 필요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설렘이나 두려움은 공간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눈길을 끈 건 '덕영이용소' 전단지였다. 색이 바래고, 귀퉁이가 찢겨진 전단지에는 '덕영이용소'의 개업을 알리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개업일시는 1987년. 30년 전이라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홍보용 전단지는 아니었다. 올해로 딱 30년이 된, 당시에 만들어진 전단지였다.

2016년, '덕영이용소'는 '덕영커피'로 이어졌다. 덕영커피에 가면 덕영이용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오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싸인볼이 그대로 있고, 바리깡, 옷걸이, 드라이기, 위생함, 텔레비전은 따로 보관해놓았다. 덕영이용소에서 쓰던 물건만 있는 건 아니다. 덕영이용소를 기억하는 동네이웃들이 그 시절의,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사용했던 거울과 난로를 카페에 기증했다.

때로는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기억과 기억을 이어주기도 한다. 쓰임은 달라졌지만, 당시를 추억하는 이들이 '덕영커피'라는 공간을 계속 찾게 되니 말이다. 과거의 보존과 새로운 창조가 공존하는 공간, '덕영커피'. 바쁘게 재촉하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서야 만날 수 있었다. 덕영커피의 어제와 오늘을.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양지로 103

세 번째 **공간**

문화다방. 다형다방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정헌기 작가와 쥬스컴퍼니 이한호 대표가 공동으로 기획해 문화다방을 만들었다. 커피 마니아였던 김현승 시인의 호를 따, 다형다방이라 이름 지었다. 내부에는 김현승을 비롯해 정율성, 문병란, 황영성, 우제길 등 양림동 출신 문화예술인의 사진과 작품들을 전시해두었다. 무인다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음료를 마시려면 직접 물을 끓이고 차를 타야 한다. 커피값 500원을 지불하는 것은 순전히 방문자의 양심. 알록달록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카페보다, 문학의 향기와 함께 '추억의 향수'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위치 광주시 남구 양림동

네 번째 **공간**

LP카페. 피터 폴 앤 메리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지나 신사동 가로수길로 접어들면, 2006년에 문을 연 '피터 폴 앤 메리'가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60년대 미국의 대표적 포크송 그룹의 이름을 딴 피터 폴 앤 메리에 들어서면 9천여 장의 LP판과 대형 스피커, 축음기가 손님들을 맞이한다. 편안한 장소와 최고의 음향을 제공하는 LP카페가 이곳의 콘셉트다. 카페에는 턴테이블이 세 개 있는데, 이중 1천만 원을 호가하는 일본 마이크로제 턴테이블도 있다. 1970년대 유행했던 야외 전축 등 희귀한 제품도 볼거리. 젊은 층이 방문하면 대중음악을 틀어 다양한 연령층과 음악을 공유하고 있으니, 좀더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음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8길 22-9

다섯 번째 **공간**

추억카페. 밤그대 카페

경기전 옆에 자리 잡은 밤그대 카페. 멀리서 봐도 외관이 눈에 띈다. 7080 분위기를 물신 풍기는 밤그대 카페에 들어서면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온 기분이 든다. 가판대에는 추억의 불량식품이, 내부에는 '선데이서울' 잡지와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았던 '딱지', '종이인형', '주사위놀이' 소품이 진열되어 있다. 오래된 텔레비전, 휴대폰, 주판, 병따개, 카세트테이프를 구경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 초등학교 때 쓰던 의자에 앉아 잠시나마 어린 시절 추억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다. 아메리카노, 유자차, 식혜 등 음료를 주문하면 추억의 뽑기도 할 수 있다.

위치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봄빛으로 물든 거리. 따스한 햇살 아래, 꽃처럼 봄을 알리는 아이템들이 있다. 봄처녀 얼굴에 생기를 더해주는 알록달록한 립스틱과 새내기들의 필수품, 가방. 문득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애용하는 사물들의 시작이 궁금해졌다.

사소하지만

알고 싶은 사물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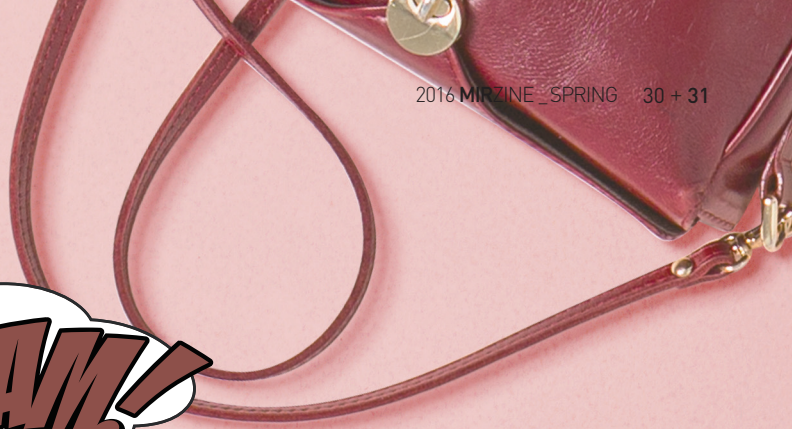
립스틱 Lipstick

립스틱의 시작은 약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립스틱은 분쇄된 반귀석의 형태를 띠었고, 입술뿐 아니라 눈꺼풀에 바르기도 했다. 진하게 아이라인을 그린 여성들이 등장하는 이집트 시대의 벽화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집트 여성들은 유난히 화장에 관심이 많았다. 눈 화장만큼은 아니지만, 립스틱 기술 역시 뛰어났다고. 이들은 주로 식물에서 추출한 붉은 물감과 포도주를 섞어서 입술에 발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고구려 시대 때부터 입술에 화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홍화 가루를 재료로 한 붉은 색의 물감을 입술과 볼에 발랐는데, 이를 연지라고 불렀다.

현대의 '립스틱'에 가까운 제품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1828년, 화장품 회사 겔랑에서 장미 추출물을 이용해 입술을 연한 핑크빛으로 물들여주는 액체 형태의 립 전용 제품을 출시한 것. 1871년에는 현대 메이크업 역사상 최초의 립스틱이라 불리는 '느 무블리에 빠'도 만들어졌다. 불어로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튜브형 용기 속에 핑크색 립스틱을 넣은 형태였는데, 위로 밀어 올리는 누름장치가 있고 다 쓴 후에는 리필도 할 수 있었다.

'립스틱'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진 것은 1915년도. 미국의 발명가 모리스 레비가 케이스의 회전막대기를 통해 작동하는 2인치의 립스틱 튜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립스틱의 시조가 된 것. 이 립스틱이 대량생산되어 상점 선반에 진열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집 안에서 만들어지던 립스틱은 상점에서 사서 쓸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



가방 Bag

가방이라는 명칭은 원래 네델란드어인 '카바스'라는 단어가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니는 상자'라는 뜻 '지아반(挾板)'으로 불리다가, 이 단어가 일본으로 넘어가 '카반'으로 불리었다. 그 단어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방'이라고 불리게 됐다.

가방은 약 1만 년 전인 신석기 시대 오키라드 부족에서 시작됐다는 말도 있으나, 현재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증거는 아시리아 지방의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날개 달린 조각신상이다. 기원전 9세기경에 제작된 이 조각신상이 사각형 핸드백을 들고 있는 것. 이렇듯 가방의 역사는 생각 이상으로 오래되었다.

초기의 가방은 음식이나 부싯돌 등을 보관하기 위해 가축의 가죽을 일부분 잘라 막대기나 나무줄기 등으로 묶고 엮은 형태였다. 허리에 쉽게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현재의 가방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부터였다. 산업혁명 이후 여성 근로자가 많아지고 여성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수납이 편리하도록 사이즈가 큰 가방이 생겨났는데, 이때부터 핸드백, 숄더백 등의 다양한 종류의 가방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서양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양식 가방이 유입되었다. 그전에는 물건을 담아 운반할 때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간수하기 위해 '보자기'나 '전대'를 사용했는데, 유입 이후로는 더 편리한 서양식 가방을 쓰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방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내부와 디자인이 실용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여성의 애장품으로만 여겨지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

!t Item

디자인은 옛날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신상품이라고?! 최신 기능에 아날로그 감성을 더한 '디지로그 제품', 복고주의를 지향하는 '레트로 문화' 열풍이 계속 되고 있다. Old & New, 그 경계에서 새로운 아이템들도 등장하고 있다.

R

클래식TV

1970~1980년대 흑백 TV에 있던 채널 로터리를 달았다. 디자인은 브라운관 TV를 연상케 하지만, 두께는 고작 6cm! 풀HD에 광시야각까지 지원하는 최신 가전이다. 아날로그 감성의 클래식TV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낼 수 있어 여성과 1인 가구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F

턴테이블

지지직~ LP판의 감성 사운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턴테이블도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나무 무늬의 테이블에 기계식 스위치와 레버를 달아 클래식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FM라디오와 CD 플레이어, USB MP3 플레이어 기능까지 갖춘 최신 오디오 기기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옥중에서 요절한 민족시인 청년 윤동주의 유고시집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주옥같은 시 31편이 수록된 초판본에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를 더해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1955년 발행된 증보판이다.

T R O

시집 초판본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김소월 '진달래꽃', 백석의 '사슴' 초판본이 과거 디자인 그대로 발간됐다. 시에 대한 정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집 초판본은 소장품으로도 가치가 있다.

픽시자전거

1970년대 자전거의 특징인 프레임이 얇고 바퀴가 큰 클래식한 픽시자전거. 프레임은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크로몰리 소재를 쓴다. 픽시자전거는 교통과 레저 수단뿐만 아니라 빈티지한 멋을 나타내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

필름카메라

이전의 필름카메라와 비슷한 외관의 미러리스 카메라(반사거울을 없앤 카메라)가 최근에 출시되었다. 여러 부가기능에 모노톤 컬러를 적용해 필름 사진의 느낌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도 더해졌다. 댄디한 룩에 잘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다.

MIR NEWS

미르는 의료 및 사회봉사, 미르갤러리,
미르아카데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르의 소식을 전합니다.

미르교육

광주미르

▸ 2월 26일 _ 증례 발표회

목포미르

▸ 매주 월요일 _ Dr 세미나
▸ 1월 11일 _ 브레인데이(우리 병원에서 현미경을 사용하는 이유 : Dr.이동균)

▸ 2월 1일 _ 브레인데이(외상환자 관리 : Dr.한만승)

▸ 3월 7일 _ 브레인데이(마음이 전해지는 커뮤니케이션 : CS팀장 오가형)

전주미르

▸ 3월 2일 _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샤프닝 강의(Dr.정회웅)

▸ 3월 7일 _ '예방치과와 정기검진 영역의 구축' 교육(치과위생사 김정민)

원장 및 사원활동

대구미르

3월 2일 _ Dr.정성국 '자기 치아 아껴 오래쓰기'라는 주제로 TBC방송 출연

목포미르

3월 3일 _ 성실납세자로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진주미르

3월 7일 _ '진료실내, 치과위생사 활용' 교육 (치과위생사 최세미)

3월 11일 _ 물방울 레이저 교육

진주미르

1월 25~26일 _ CAD CAM 시스템 교육

2월 5일 ~ 3월 11일 _ MBC 라디오 치과상담 진행
- 2월 5일 _ Dr.김종환(술과 치아건강)
- 2월 12일 _ Dr.박채희(안면비대칭)
- 2월 19일 _ Dr.허선(이갈이)
- 2월 26일 : Dr.정회웅(신경치료)
- 3월 4일 : Dr.김종환(치아뿌리 염증치료)
- 3월 11일 : Dr.박채희(치아교정 궁금증)

3월 11일 _ 더블엠 구강악안면외과치과 의원 observation(Dr.정회웅, Dr.박채희)

3월 11일 _ '치위생사 입학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끌어내기'라는 주제로 호원대학교 졸업생 멘토 특강(치과위생사 김선희)

진주미르

2016년 상반기 _ 진주보건대 출강(Dr.허준용, Dr.황준환, Dr.노창세, Dr.조현규)

3월 20~26일 _ Dr.노창세 Tweed 교정연수 참석

원내 주요 활동

광주미르

▸ 1월 2일 _ 시무식

▸ 3월 3, 8, 9일 _ 수관 소독

대구미르

▸ 2월 1일 _ 슬로베니아 루블라냐 대학 귀빈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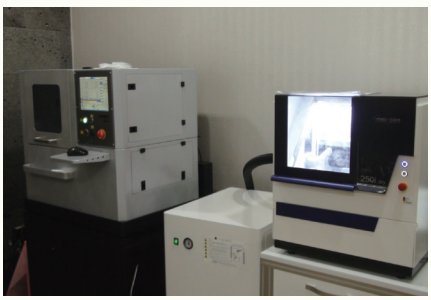
▸ 3월 14일 _ 미군부대 트라이케어 투어

목포미르

▸ 설날연휴 _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응급진료 시행
▸ 3월부터 _ 출장 검진 시작
▸ 3월 15일 _ 소방자체교육 및 자체훈련
▸ 4월부터 _ 상반기 소아치과견학 시작
▸ 4월부터 _ 어린이집 내원검진 시작
▸ 4월 14일 _ 소방서 교육(심폐소생술 및 응급구조)

진주미르

▸ 1월 4일 _ 신입직원 첫 출근
▸ 1월 _ 네트워크 환경개선공사 및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 1월 _ Mir Digital Lab. 오픈 (CAD/CAM 장비 구축)



후원 & 봉사

첨단미르

▶ 3월 19~20일 _ 제10회 첨단미르치과병원기 배드민턴 대회

광주미르

▶ 3월 9일 _ '사랑의 집' 구강검진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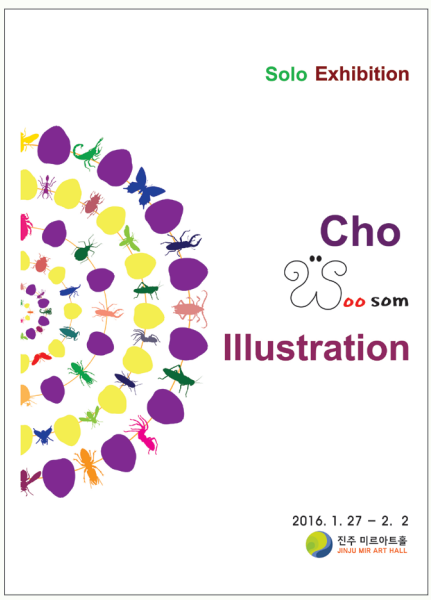
대구미르

▶ 1월 13일 _ 갤러리 미르 : 작가와의 만남 (정태경 작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일까? 展')

문화행사

진주미르

1월 27일 _ 조우솜 개인전(일러스트레이터)



2월 26일 _ 이종덕 개인전(회화)

3월 16일 _ 이강용 초대전(회화)

봄햇살 그대를 비출다
그래서 그대는
꽃 같은 사람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아야 한다.
옛것을 사랑할 때
새것의 진정한 가치를 즐길 수 있다.
지켜야 할 옛것을 모르면
가져야 할 새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고독의 즐거움』 중에서

MIR, 행복한 미소를 향한 정직한 약속
the global standard

거제미르치과병원 거제아주미르치과병원 경산미르치과병원 구미미르치과의원 구미뉴욕미르치과의원 광주상무미르치과병원 광주첨단미르치과병원 대구미르치과병원 목포미르치과병원 밀양미르치과의원
부천미르치과의원 서대구미르치과의원 서울미르치과의원 수원미르치과의원 순천미르치과병원 안산미르치과병원 전주미르치과병원 진주미르치과병원 창원미르치과의원 통영미르치과의원 포항미르치과병원